



“국도 1번에 담긴 시대정신 고향 장성 애환의 발자취 담아”

이효복 시인 '달밤, 국도 1번' 발간

교사로 재직...35년만에 시집 펴내
농촌 풍경·나눔의 정 이미지화
광주의 오월·코로나 현실 등 조망
“시는 나와 세상을 이어주는 밧줄”

이 시를 이룬다고 할 수 있어요.”

지난 90년대 초반에 시집을 펴낸 이후 시인은 오랫동안 시를 쓰지 않았다. 아니 시를 쓰지 않았다보다 끊임 없이 시를 썼지만 거의 활자화하지는 않았다고 보는 게 맞다. 교사로 근무하기도 했고, 도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문예창작을 강의하기도 했다. “학생들과 시 모음집도 만들고 시화전을 개최하기도 하면서” 늘 문학과와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어쩌면 이번 시들에 붙은 ‘꿈’이라는 부제는 ‘끈’으로 치환할 수도 있겠다.

그는 시는 나 자신과의 약속인 동시에 시의 원천은 길 잃음에 있다고 말한다. “세상에 무엇인가 흘러 지루 길을 잃는데 나를 온전히 잃음(파괴)으로 나는 다시 창조”되는 이치와 같다는 얘기다.

언급했다시피 이번 시집은 특정 공간의 기억을 현재로 소환해 그것을 새롭게 시인의 눈으로 재구성하는 데 특징이 있다. 시인은 그 공간들 속에서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무언가를 찾아내 각각의 존재와 기억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

“고향 장성의 빼어난 애환의 발자취를 더듬었어요. ‘자라와 마을’의 농촌 풍경과 소소한 나눔의 정을 이미지화하고 장성 백비에서 마음을 추스르는 시도 있습니다. 고향 마을 어르신들 만나 6·25의 참상을 듣고 그것을 시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물살’ 집안 어른들에 대한 이야기는 시로 쓴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고향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달밤, 국도 1번’을 오가며 바라보고 생각하며 느낀 세상에 대한 단상을 이미지화 한 작품들도 있다. 시인은 “자꾸만 죽고 사라져 가는 생명 사상과 연계해” 시로 형상화했다고 한다.



그러나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1980년 당시 목포경찰서장이었던 작은아버지 이준규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작은 아버지의 생애는 '90일간의 구금과 파면 / 그 흔적조차 아득하다// 어느 시인이 내게 전해 준/ '안병하 평전'을 읽다가/ 사진 한 장을 본다//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은 5·18 당시 안병하/ 도경국장의 지시에 따라 무기 사전 대피 등 시위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이유로 합수부에 끌려가 고문과/ 구속, 파면을 당했고, 그 후유증으로 4년 후 사망했다// 그는 한 집안의 가장이자 꿈이었다.”

“이준규-목포”라는 시는 80년 5월의 고통과 상흔이 여전한 현실임을 보여준다. “시위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이유로” 고문과 구속을 당하고 파면을 당해야 했던 작은아버지의 삶은 시대의 격랑에 무참하게 스러져야 했던 한 인물의 역사를 고스란히 대변한다.

50여 편의 시에서 시인은 곡진하게 꿈의 기억, 체험을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 시대정신을 노래한다. 국도 1번에 드리워진 시대정신을 특유의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읊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광주 중앙여고에서 양성우 시인을 만났고, 대학에서 문명관 선생님을 만났고, 졸업 후 엔 조태일 선생님을 만났다”는 말과 일정 부분 연계된다. 이번 시집을 발간하면서 남편 박현우 시인의 도움이 적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1989년에 ‘부부교사 부부시인’으로 TV에 소개되기도 했다. “남편이 많이 읽어주고 격려도 아끼지 않아 용기를 냈다”는 말에서 시를 매개로 한 부부시인의 행로가 그려진다.

한편 이효복 시인은 조선대 국문과를 졸업했으며 1976년 ‘시문학’에 ‘눈동자’를 발표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부부시집 ‘꽃빛도 물빛도 하나로 만나’, ‘나를 다 가져오지 못했다’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종이달’ 이서형

‘대행사’ 이보영

안방 휘어잡는 ‘셴 언니들’

‘대행사’·‘더 글로리’ 등 ‘여성 서사’ 드라마 다채 시청자들 ‘신데렐라’보다 능력있는 캐릭터 선호

음산한 산길에서 홀로 산딸기를 따고 있는 소녀에게 백마 탄 왕자가 다가온다. 도움을 청할 것처럼 왕자를 올려다보던 소녀는 갑자기 숨겨뒀던 칼을 꺼내 휘두르며 이렇게 말한다. “왜? 다른 여자애들이랑 달라서 놀랐니?” 현재 방송 중인 JTBC 주말드라마 ‘대행사’는 여전사 트레이닝 게임 광고로 포문을 열었다. 광고를 기획한 여자 주인공의 창의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은 다른 작품의 여주인공들과 다르다는 것을 예고한다.

‘신데렐라 스타일’ 여자 주인공은 이제 옛말이다. 능력 있고 야망 있는 ‘셴 언니’들이 올해 안방극장을 휘어잡는다.

7일 시작한 주말드라마 ‘대행사’는 대기업 광고대행사 VC그룹에서 여성으로서는 처음 임원이 된 고아인이 최고의 지위까지 자신의 커리어를 구축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이보영이 대기업 광고대행사 VC기획에서 제작2팀을 이끄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고아인 역을 맡아 극을 이끈다. 시청자들은 고아인이 지방대학 출신에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뛰어난 성과를 거뒀음에도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여 분노한다. 또 차별에 맞서 분투하는 그를 응원하게 된다.

다음 달 10일 파트2의 시작을 예고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에서도 독하고 전투적인 여자가 주인공으로 나선다. 송혜교는 유년 시절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문동을 역을 맡아 가해자들을 한 명씩 처절하게 처단한다.

복수에 대한 집념에 사로잡힌 여자 주인공에게 사랑은 안중에 없다. 문동은 자신을 짝사랑하는 남자 주인공에게 “난 왕자가 아니라 나랑 같이 칼춤춰줄 망나니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드라마의 여왕’ 김희애와 이영애는 남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역할을 껴챘다. 김희애는 새 넷플릭스 시리즈 ‘퀸메이커’에서 이미지 메이킹 전략의 귀재 황도희 역을 맡는다. 약자의 편에서 서서 세상과 맞서 싸우는 노동 인권변호사 오경숙(문소리 분)을 서울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선거판에 뛰어든다.

이영애는 드라마 ‘마에스트라’에서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여성 지휘자로 변신한다. 내일은 없는 듯 과감하고 열정적으로 달려온 덕분에 모두가 부러워하는 위치에 오른 캐릭터다. 오케스트라 안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사건을 파헤치며 자신을 둘러싼 진실에 다가가는 이야기를 그린다. 어떤 플랫폼에서 언제 방영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배우 김서형도 ENA 드라마 ‘종이달’에서 서스펜스를 이끈다. 남편과의 불화를 견디며 숨 막히는 일상을 살던 여자가 은행 계약직 사원으로 일하던 중 VIP 고객들의 돈을 횡령하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이야기다.

‘대행사’의 뒤를 이어 방영될 JTBC 드라마 ‘닥터 차정숙’은 ‘아침마미 성장기’를 표방한다. 엄정화는 남편의 배신을 계기로 20년 차 가정주부에서 1년 차 전공의(레지던트)로 인생 항로를 바꾼 차정숙을 연기한다.

황진미 대중문화평론가는 “주체적인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들이 주를 이루게 된 건 드라마 주 시청층인 여성들의 로망이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요즘 여성들은 ‘신데렐라’를 꿈꾸기보다 본인 능력으로 사회적 편견과 억압을 극복해 성취를 누리려고 한다”며 “드라마 작품들도 이런 시청자들의 입맛에 맞게끔 변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외국인이 촬영한 한국 근현대 영상 113편 공개

내일부터 한국영상자료원 DB

한국영상자료원은 1900년대 초부터 1950년 무렵까지 근현대 한국의 모습을 담은 기록 영상 113편을 26일부터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 컬렉션 서비스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당시 한반도를 방문한 외국인이 촬영한 것들로, 조선인에 대한 인상과 생활상, 민속문화, 자연경관, 도시 풍경 변화를 나눈 시선을 담아 기록한 영상물이다.

이중 주목할 만한 영상은 미국인 제임스 헨리 모리스가 촬영한 푸티지 모음집인 ‘아카이브즈 코리아(Archives

Korea) 1930~1940’이다.

2020년 입수한 이 영상은 적정 속도로 재생했을 경우 5시간 14분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희귀 장면이 대거 포함돼 있다.

미국 남장로교의 전주 선교활동, 이화학당 개교 50주년 및 신촌 교사 이전 기념행사, 성균관 문묘 석전대제 광경, 정동 영국영사관 등의 외국인 교류 활동이 담겼다. 또 덕수궁과 창경궁의 공원화 사업 및 어린이 놀이터 출현 모습, 금강산의 다채로운 풍경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1900년대 초 조선을 촬영한 영상과 승무와 채용무 등을 담은 영상, 해외 한인 관련 기록영상 등도 포함돼 있다.

/연합뉴스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가 건립한 전주 기전여학교(추정) 수업장면.(1933~1935년 추정)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